



창작국악단 도드리



프롤로그

마을축제에 폭 넓은 문화체험 더하다

마을축제와 함께하는 푸른길 음악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푸른길공원 청로정 앞에서 열린다.

창작국악단 도드리는 광주시민 참여 예산 지원사업으로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 지역 야외무대에서 순회 공연을 갖는다.

마을축제와 함께하는 음악회는 시민이 참여해 사업영역과 예산을 결정할 광주시민참여 예산제로 시행되는 행사다.

브랜드화된 마을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마을 축제의 질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됐다.

31일 오후 2시 푸른길공원 청로정 앞 공연에서는 '잿팻크루', '스카이브릿지', '프롤로그'가 함께 참여해 90분 동안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창작국악단 도드리, 야외 순회 음악회

31일 푸른길공원 청로정 시작 11월까지

'잿팻크루·스카이브릿지·프롤로그' 참여

국악과 대중음악, 재즈, 전통무용, 비보이의 춤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잿팻크루 비보이의 '옹해야'를 시작으로 도드리의 위촉곡 '섬진강'과 국악가요 '낭만'과 '축제' 등이 이어지고 스카이브릿지의 '귀여운 꼬마'와 'If I Ain't Got You', '베사메우초', '일상'을 들려준다.

창작국악단 도드리는 창작과 퓨전, 전통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흥미를 더한다. 도드리와 잿팻크루 비보이의 'Comtemporary 아리랑'으로 전통

과 현대가 어우러진 협연을 펼치고 프롤로그와 함께 '강물처럼', '작은새', '다시 합시다' 등 국악과 대중가요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국악가요 '너영나영', '아름다운 나라'로 관객을 만나고 '아침이슬'과 '하얀나비', '나는 못난이' 등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가요를 관객과 함께 부르며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한편 푸른길 음악회는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광주시 5개 구 마을축제에서 펼쳐진다. /이연수 기자

◇마을축제와 함께하는 음악회 일정

- ▲남구 푸른길음악회 8.31(금) 14:00 주월동 푸른길공원 청로정 앞 ▲동구 지산유원지 토요일 음악회 9.1(토) 19:00 지산유원지 불사리노 주차장 ▲광산구 수완 멋과소리한마당 9.7(금) 19:00 수완호수공원 ▲광산구 제12회 광산우리말축제 10.12(금) 18:30 송산근린공원 ▲서구 제4회 영산강 서장들널 역사축제 10.13(토) 18:30 영산강수변공원 야외특설무대 ▲남구 양림동 문화난장 10.20(토) 14:00 양림오거리 광장 ▲북구 밤실로 먹자골목 준공 기념음악회 11.30(금) 14:00 두암3동사무소 주차장

“남도문학 정점은 매천 황현”

섬진강권 문학포럼 성료... 내달 영산강권 진행

남도문학벨트 구성을 위한 전남 순회문학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섬진강권 문학포럼이 최근 곡성군 섬진강변 강빛마을 강당에서 광주 전남 문인 약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도의 특성이 배인 문학콘텐츠 개발 토론회에서는 박해강 작가가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시대 문학의 주류였던 호남문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며 남도문학의 전통과 문학정신이 의리와 호국정신이며 이의 정점이 매천 황현이라고 정리했다.

현대의 호남문학이 정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구문학에서의 연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호남의 중세 한문학과 가사문학 등 전통적 남도의 문학전통과 정신을 탐색해 수용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고재종 시인이 자신의 문학

활동을 모색하는 발제와 함께 이재백, 박두규, 이옥근, 이동순 문학평론가가 나서 광주전남지역 문학사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남도의 특성이 배인 문학콘텐츠 개발 토론회에서는 박해강 작가가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시대 문학의 주류였던 호남문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며 남도문학의 전통과 문학정신이 의리와 호국정신이며 이의 정점이 매천 황현이라고 정리했다.

여기에서 모아진 문학콘텐츠를 남도의 문학현장에서 시험하게 된다. 9월에 영산강권 문학포럼, 10월에 다도해권 문학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섬진강권 문학포럼이 최근 곡성군 섬진강변 강빛마을 강당에서 광주전남 문인 약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선 7기 성평등정책 청사진 제시

광주여성재단 소식지 12호 발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민선 7기 성평등정책 청사진을 분석·조명한 소식지 제12호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을 발행·배포했다.

이번 소식지의 기획특집 주제는 '민선 7기 성평등정책 청사진'으로 최근 포문을 연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등 여러 정책들이 성평등 의식을 전제하고 있는지 진단해본다.

'이음섭 광주광역시시장에게 듣는다'

를 문패로 한 인터뷰에서 이 시장이 제시한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주 내용으로는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만들기 4대 공약과 출산·보육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4대 공약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김경례 전남대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교수가 '민선 7기 성평등정책 분석 및 제언' 글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을 시·구정 주요 기지로 삼아야 한다며 ▲여성 정치 참여 및 대표



성 확대 ▲성평등교육 강화 및 내실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양산 등을 제시한다.

또 광주여성재단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현안워크숍을 통해 여성 각계에서 제안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성별임금공시제 의무화 ▲공공대체인력뱅크 운영 ▲여성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확산 등의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광주여성재단은 지난 7월 여성시의원 8명과 좌담회를 가진 내용을 중심으로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언과 소통의 대화를 지상 중계한 바 있다.

'포커스 현장'에서는 광주지역차상위계층여성들의 정책욕구를 조사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정부합동 '5·18계급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등을 밀착 조명한다. /이보람 기자

파독 간호사의 정체성 재탐구

광주문화재단 오늘 연극 '작은 스크린' 상영

광주문화재단은 16일 '작은 스크린' (SAC on Screen)을 통해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를 상영한다.

이번 연극은 2017년 예술의전당에 제작하고 김재엽이 연출한 창작 작품으로 '세계시민 이주인 그리고 난민'의 두 번째 시리즈다. '독일로 간 간호 여성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궁금함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파독 간호사를 둘러싼 선입견에서 한발 물러나 김재엽이 직접 듣고 경험한 그들의 목소

리로 그들의 정체성을 재탐구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관객은 '파독간호사'가 아닌 '병동소녀(Krankenschwester)'로 살아왔던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다.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 가능하다. 상영시간은 120분이며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도 받는다.

문의 062-670-7931 /이보람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